김무성 등 물망…이재오 기용 여부도 관심

안상수 "3~4명 입각" 요구에 靑 '긍정적' 분위기

입각 현실화 땐 "MB, 민심 반영 소통 강화" 해석

■친박·정치인 입각 얼마나?

이달 중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 및 정치인 입각이 어느 정도 이뤄질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치권의 구도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9일 "친박 및 정치인 입각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여의도 정치에 불신을 떨치지 못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우선 친박 및 정치인 입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정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화와 화합을 통한 인사로 집권 2년차 국정과제를 추동력있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정치인 입각 가능성은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민심 반영과 당정간 소통강화를 위해 정치인 3~4명 입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 내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 2년차에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충성도가 높고 정무감각과 추진력을 갖춘 측근 의원들을 행정부 내에 포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총장 인사에서 보듯, 세대교체와 차세대 주자 육성을 위한 '깜짝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임태희, 정두언, 주호영, 정병국, 나경원 의원 등이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모두 40~50대로 소장층인 데다 정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으로 당내 계파화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친박 인사들의 내각 입성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현실성 있게 거론되고 있다.

친이계 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현재 당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친박 인사의 입각이 당 화합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정무장관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최경환 서병수 의원도 장관직 후보 물망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이나 세법(稅法) 개정을 깔끔히 처리한 서병수 의원의 경우 계파 색채가 비교적 옅은 데다 능력과 경험, 자질 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기용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권의 2인자'로 꼽혔던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1년6개월간 정치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낮은 행보를 보여왔고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모종의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본인은 당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엷어진 상황에서 정무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 들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폭 희생자 추모 헌화 세계 2차 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원폭 투하 64주년을 맞아 9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나가사키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앞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광주시, 모든 시내버스 내년까지

광주시가 내년까지 이 지역에서 운행중인 모든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량을 모두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한다.

9일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168억원을 들여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713대, 마을버스 27대, 전세버스 5대 등 모두 746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바꿨으며, 올 하반기까지 모두 180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함께 실시중인 경유자동차의 엔진개조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494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565대를 개조 또는 보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유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책에 따라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존경보 발령이 단 한 건도 발령되지 않는 등 매연이 크게 감소했다.

아이디어로 내실 기한다

광주김치축제 스토리텔링 등 공모

광주시가 올해 광주김치문화축제를 지역민은 물론 전국민의 참여 속에 내실있게 치르기 위해 김치와 관련된 학술논문이나 아이디어, 이야기를 공개모집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광주김치문화축제의 전국화와 광주를 김치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제김치학술논문과 김치산업 콘텐츠 아이디어, 김치 스토리텔링 등을 전국 공모한다.

또 김치산업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김치 가공·디자인·마케팅 등 김치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 광주·전남과 전국의 김치산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김치스토리텔링 공모사업은 1천만원의 고료를 내걸고 김치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특별한 이야기 소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2009 친환경 경영평가

전남도 '종합대상' 수상

전남도가 환경친화적인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09 친환경 경영평가'에서 '친환경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열린경영연구원 등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8.2%인 10만1천256ha를 확보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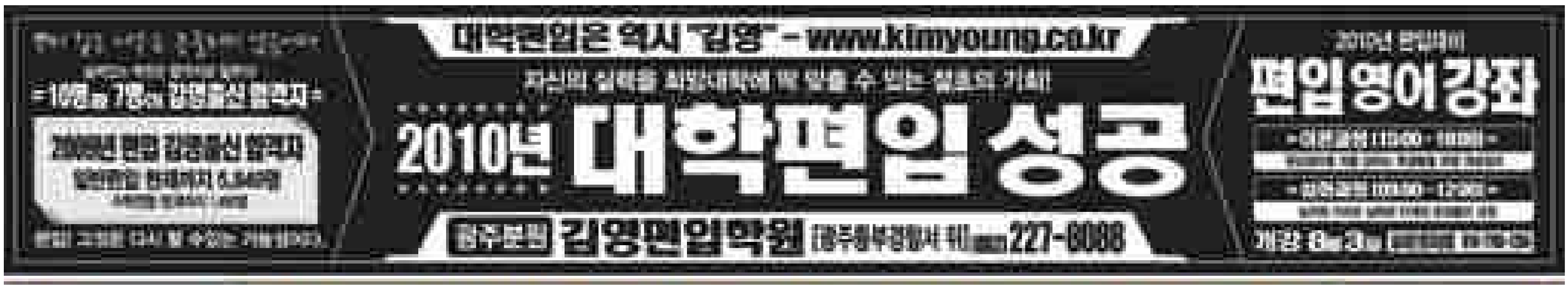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올해를 친환경농업 정착의 해로 만들기로 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의 40% 이상을 무농약 이상 농산물 인증으로 끌어올리는 등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김정일 와병 1년 "통치 이상 없다"

북한 김정일(67)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순께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뒤 80일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그해 11월 초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앞서 10월4일 북한 매체들은 그가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철도대학팀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10월11일엔 북한군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는 보도와 함께 사진이 공개됐으나 사진 배경의 초목 색깔 등으로 인해 촬영 시기가 7, 8월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았다.

그는 지난 1월 방북한 중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함으로써 처음으로 외국 요인을 통해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고, 이달 4일에는 '적대국'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무성해지던 더욱 악화된 건강 소문을 잠재웠다.

여전히 과거보다 수척하거나 머리숱이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미소 짓는 표정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 등을 통해 통치에는 무리가 없다는 인상을 줬다. /연합뉴스